

프란치스칸 총봉사자들이 보내는 성탄서한

아시시, 2020년 12월 25일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사 9,1)

프란치스칸 가족,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희망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친애하는 모든 프란치스칸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빛과 음악은 성탄을 표현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토마스 첼라노는 그레초(Greccio)에서의 성탄에 대해 전하면서 “대낮같이 환히 밝혀졌고, 사람들과 짐승들을 매우 즐겁게 하였던” 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새로운 신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에 젖었습니다. 사람들의 우렁찬 목청에 온통 숲이 울렸고, 바위들까지도 그들의 기쁨에 화답하였습니다. 형제들도 지금까지 못다 바친 찬미를 주님께 노래하였으며, 밤새도록 그들의 기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첼라노 85; FF 469 참조).

국제적인 커다란 프란치스칸 가족의 대표자들인 우리는 이제 높은 곳에서 오는 빛을 예견하며 더불어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의 아름다운 울림소리(sonorità)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에게 음악용어로 전하고자 합니다.



1. 기보법 (記譜法; notazione musicale)¹

1.1. 새로운 총보 (partitura)²

우리는 대림 시기의 여정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성탄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2020년의 마지막까지 몇 일 더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매우 특별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10년 간 겪을 체험을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정치적 변화,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시위들, 긴장, 전쟁, 혐오, 낭비, 정보의 혼란 - 우리는 세상이 더 어두워졌고 또한 다양한 격리(lockdown)로 인해 더 폐쇄되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1장: 폐쇄된 세상의 어둠, 9-55항 참조). 그리고 바로 이 역사적인 순간에 교황 프란치스코로부터 회칙 『모든 형제들』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회칙에서 “우리 모두에게 살 자리를 내어주는 이 땅의 자녀들인”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전지구적인 포용을 나누는 하나의 인류 가족을 꿈꾸고 바라는 열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모든 형제들』 8항).

교황은 프란치스코 형제 (frate Francesco)가 체험하고 전해준 형제적 사랑, 가까운 이웃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회칙 『모든 형제들』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 또한 언급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육체를 가진 자들” (『모든 형제들』 2항)을 향한 사랑과 그들 서로 간의 사랑 그리고 가난하고 작은 이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언급합니다. 또한 교황(Santo Padre)은 프란치스코 형제가 이집트의 술탄 말릭-알-카밀 (Malik-al-Kamil)를 찾아갔던 역사적이고 겸손한 방문이 지니는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가난뱅이 (Poverello d'Assisi)는 “출신이나 국적, 피부색 또는

¹ 음악의 연주나 발표, 보존, 학습 따위를 목적으로 일정한 약속이나 규칙에 따라 기호를 써서 악곡을 기록하는 방법.

² 합주나 합창을 할 때, 각 악기별 또는 성부별로 된 여러 악보를 한데 모아 한눈에 전체의 곡을 볼 수 있게 적은 악보. 목관 악기, 금관 악기, 타악기와 하프 또는 현악기의 차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적는다.

종교로 인한 간격을 너머 나아갈 수 있는 한계 없는 마음을 지닌” (『모든 형제들』 3항) 형제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그를 만났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 프란치스코가 하느님 사랑의 위대한 전달자요 “형제적 사회라는 전망에 영감을 불러일으킨 풍요로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회칙을 쓰게 된 주된 동기(motivazione)였습니다 (『모든 형제들』 4항).

이제 이것은 당연히 프란치스코 가족의 일원인 우리에게도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가족의 총봉사자들인 우리는 아시시에 머물며 10월 3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성 프란치스코의 무덤 성당(la Tomba di San Francesco)에서 미사 성제를 봉헌하고 회칙에서 명하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여 교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마련해준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온 가족에게 그리고 특히 (in primis) 총봉사자들인 우리에게 전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모든 형제들』과 그 가르침을 2020년에 교황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요 과제로, 성 프란치스코에서 비롯되어 교황 프란치스코를 통해 전해진 동기로, 역사라는 위대한 오페라(opera)를 통해 배우고, 연습하고, 연주하게 될 새로운 총보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

1.2. 희망이라는 화성(accordo)³에 담긴 음표(nota)⁴들

교황 프란치스코는 현실주의자(realista)입니다. 그렇기에 사물들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대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분석하면서(『모든 형제들』 9-55항) “간과할 수 없는 짙은 어둠들” (『모든 형제들』 54항)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

³ 일정한 법칙에 따른 화음의 연결.

⁴ 악보에서, 음의 장단과 고저를 나타내는 기호.

인류가 겪는 이러한 고통들에 그가 제시하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그러면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희망은 우리에게 “목마름, 열망, 풍요로움과 성취를 이루는 삶에 대한 갈망,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진, 선, 미 그리고 정의와 사랑...같은 고귀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들에 대해 말해주는 어떤 것입니다.” 희망은 “두려움이 없으며, 삶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원대한 이상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사고의 지평을 제한하는 개인의 편익과 웅졸한 확신과 작은 보상 그 너머를 이해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는” 실재입니다(『모든 형제들』 55항).

하지만 어디서 희망을 얻습니까? 자연스러운 해답은 분명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은 하느님에게서 얻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희망과 기쁨의 원천은 하느님과 그분의 복음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미 『복음의 기쁨』에서 참된 기쁨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언급하였습니다(『복음의 기쁨』 1-8항).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요 그분의 벗임을 깨닫는 것 - 이것이 희망이라는 화성의 첫 번째 음표입니다.

모든 사회적 활동(azione)과 연대(solidarietà)와 우애(amicizia)는 이러한 깨달음에 기초를 둡니다.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라면 이는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형제와 자매 앞에 차별이란 없습니다. 『모든 형제들』에서는 분명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다른 사람들과는 별개로 혼자서 얻고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자매와 형제들을 재발견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립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며,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그 누구도 홀로 구원되지 않는다”(『모든 형제들』 54항)는 것을 깨닫는 것 - 이것이 화성의 두 번째 음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행성에서 역사적인 특별한 이 시기를 살고 있으므로,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거처인 지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찬미 받으소서』에서 “공동의 집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난 다음 희망을 갖도록 초대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언제나 헤쳐 나갈 길이 있고, 길을 바꿀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나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기”(『찬미 받으소서』 61항)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세 번째 음표는 신선한 물의 맛, 오염되지 않은 숲의 깨끗한 공기 냄새 그리고 수천 마리 새들의 지저귀임으로 가득 찬 열대 우림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표는 세 음표 가운데 하나라도 불완전하거나 빠진다면 제대로 연주될 수 없는 희망의 화성을 완성합니다.

2. 협주곡(concerto)

2.1. 첫 마디(battuta)⁵ - 관계와 만남

『찬미 받으소서』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어떤 지구를 원하는지 묻고 있다면, 『모든 형제들』은 우리에게 미래에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의 통찰력은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도록 초대합니다(『모든 형제들』 3장:열린 세상의 구상과 창출, 87-127항 참조).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결과적으로 양성에 대해서도 질문들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프란치스칸 가족 안으로 옮겨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프란치스칸들은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에게 훗날 어떤 모습의 프란치스칸 세상을, 또 어떤 가치와 생활양식과 사상을 전하고 싶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프란치스칸 세상 안에서 특별히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길 원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⁵ 악보에서, 세로줄과 세로줄로 구분된 부분.

프란치스칸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친근하고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찬미 받으소서』는 세상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찬미 받으소서』 117항 참조) 관계망(關係網; “관계”는 프란치스칸의 주요 개념들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이 관계망이 고립(isolamento)이라는 위협으로 인해 손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복과 더불어 만남의 문화 안에서 희망을 찾게 된다고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모든 형제들』 30항 참조).

만남의 문화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교황 프란치스코는 “모든 변화가 동기 부여와 교육과정을 필요로” (『찬미 받으소서』 15항)하고 “그리스도교 영성 체험의 보화”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화된다고 말합니다(『찬미 받으소서』 15항). 우리는 여기에 프란치스칸적인 영성 체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양성 지침(Ratio formationis)과 학업 지침(Ratio studiorum)에서 교황의 이러한 신념에 기초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간적, 사회적, “환경적” 양성에 관한 주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만남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어떻게 우리의 양성 과정 안에 추가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그의 고향인 지구도 지키고 구원하는 것은 친밀함(vicinanza)이기 때문입니다.

2.2. 선행되는 마디 - 관심과 대화

교황 프란치스코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욕구에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모든 형제들』 65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격을 받아 길가 땅에 쓰러진 부상당한 사람” (『모든 형제들』 63항)에게 무관심한 사제나 레위인이라는 부류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 정도를 가늠해보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기에 고통받는 누군가를 보는 것이 우리를 성가시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지” (『모든 형제들』 65항) 자문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루고 싶은 소망 가운데 하나는 이번 성탄 시기에만 그치지 않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모든 형제들』 66항) 본받고 “우리의 국가와 전 세계의 시민이며 새로운 사회적 유대를 구축하는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소명을 재발견하기” 위해(『모든 형제들』 66항) 더 많은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결정은 우리를 강도들 가운데 한 명으로 만들거나 길가에 부상당한 사람의 고통에 동정심을 보이지 않고 지나쳐 가버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만들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 67항). 이러한 소망과 함께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보다 더 창의적일 수 있으며, “배타적인 사회를 건설하도록”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모든 형제들』 67항)?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 보다 더 대담해질 수 있습니까?(『모든 형제들』 233-235항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 대한 영감의 원천을 말하면서 성 프란치스코 외에도 “교회친교의 희망을 나누고 있는 존경하는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찬미 받으소서』 7항)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형제들』에 대한 영감의 원천을 말하면서 위대한 이맘 아흐메드 알-타예브에게 큰 자극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모든 형제들』 29항 참조). 이와 함께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양도할 수 없는 정체성에서 시작하여(『모든 형제들』 3항 참조)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초대된 대화의 구체적이고 적절한 예를 제시합니다(『모든 형제들』 6항).

우리는 프란치스칸 형제와 자매들로서 이미 다양한 장소와 방식으로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와 믿음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우리 곁에 가까이 살며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와 만남의 장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자문해볼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몇 가지 실용적인 가르침을 남겨주었습니다. -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언」 23; FF 121 참조).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인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사는 대화의 서곡(*ouverture*)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이 인사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친절함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모든 형제들』 222-224항 참조)! 그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한 자매 또는 한 형제임을 알아보았으며, 하느님의 마음 속에는 인류의(*seconda categoria*) 자녀들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3. 음악학교

우리는 교황 프란치스코로부터 익혀야 하는 새로운 충보를 받았습니다. 곡(*brano*)⁶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모든 곡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표 하나하나마다, 마디 하나하나마다 천천히 멋진 연주 실력을 습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새로운 곡은 열린 세상, 만남이 계속되는 세상, 새로운 생활 양식 그리고 새로운 시각과 사고가 가능한 세상에 대한 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곡을 연주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제들』의 충보 안에 감추어진 음악의 이치(*logica della musica*)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들, 내적인 과정들(형제회의 내부적인 것,

예를 들어 양성)과 외적인 과정들(세상에 대한 우리의 봉사)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아름다운 곡의 음들은 어디서 배웁니까? 성탄 시기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오며 더 좋은 음악학교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성탄이 이를 실천에 옮기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는 “그 날 주님이 당신 자비를 베푸시니 밤에 저는 그분께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의 수난 성무일도」; FF 303 참조)라고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베들레헴에서 만남의 장이 열립니다. 만남의 문화에 기여하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웃이 된 분은 하느님 자신입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단지 시선만 주고받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 (정말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 그리고 분명 나자렛 사람 마리아는 그러했습니다! - 세상이 창조된 이래 처음으로 하느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 “그 누구도 사랑하는 실재적인 얼굴을 갖지 않고는 삶의 가치를 체험할 수 없기” (『모든 형제들』 87항) 때문에 하느님께서 성탄 축일에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야 소비에만 집착하지 않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양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체성의 원천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양성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자렛 사람 마리아가 입맞추고 요셉이 안았던 강보에 싸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관상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이 얼굴에서 우리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1요한 4,16)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로소이다. 여행 중에 우리를 위해 태어나 구유에 눕혀졌나이다” (「주님의 수난 성무일도」; FF 303 참조). 이 아이는

⁶ 작곡된 음악 작품.

성부께서 온 인류와의 대화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며, 대화하기 위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 오셨던 말씀입니다(요한 1,14).

보십시오, 여기에 희망의 원천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느님이 계신 곳인 동시에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프란치스칸 가족의 총봉사자들도 하느님의 학교에서 희망, 관계와 만남, 관심과 대화의 화성으로 이루어진 “베들레헴의 아기” (『1첼라노』 86; FF 470 참조)라는

새로운 총보를 쓰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탄 인사와 함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글을 통해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특별한 성탄에 여러분 모두가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천사의 노래 소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자매형제들과 함께 듣고 싶어하는 대담함을 가지기를 우리는 한마음으로 희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 모든 -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참조).



DEBORAH LOCKWOOD OSF
Presidente IFC-TOR



TIBOR KAUSER OFS
Ministro generale



MICHAEL ANTHONY PERRY OFM
Ministro generale



ROBERTO GENUIN OFMCAP
Ministro generale



CARLOS ALBERTO TROVARELLI OFMCONV
Ministro generale
Presidente di turno della
Conferenza della Famiglia Francescana



AMANDO TRUJILLO CANO TOR
Ministro generale